

권영세 안동시장 2014문화사업육성발전공로대상 수상

권영세 안동시장(안동 61세, 34세 북아공파)이 최근에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회의 회, 국민행복시대, 스포츠코리아 신문, (사)국제문화공연교류회, 대한민국보훈방송이 공동 주관하는 「2014 한국 사회를 빛낸 대한민국총효대상」에서 행정공직 부문 “2014 문화산업육성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권영세 시장

인사를 추천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권영세 시장은 현재 시(市)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3대문화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국정신문화재단을 설립해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개최하고 한국전통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 시장은 수상 소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의 결과이며, 또 직원들의 밤 낮으로 땀 흘려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의 인문가치를 주도하는 역사문

화도시로 발돋움 시켜 나갈것”이라며 “경북북부의 민속문화유산 총괄관리를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분관유지와 대형국책 사업 등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안동미래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영세 안동시장은 한국유학의 연원지가 되게 이황산생의 학문적 성취가 오롯이 남아있는 도산서원 축소모형을 중국 장사시 악록서원 내에 개관된 중국서원박물관에 기증, 상설 전시케 했으며 또한 안동시에서는 도산서원의 모형을 제작하여 악록서원에 기증함으로써 우리 서원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리고 양 서원의 교류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향우신문 2014. 10.31. 1면 3면, 인용〉

부산 등산회 붉게 물들인 지리산 뱀사골을 찾아



△부산등산회가 지리산 뱀사골에서 단체대회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동권세 부산등산회(會長 權重元)는 지난 10월25일, 회원 40여명이 관광버스로 붉게 단장된 지리산(국립공원1호) 뱀사골에서 국토탐방 단합대회를 네레행사 일환으로 가졌다. 상행시에는 차량내에서 협찬된 떡,과일 등을 나눠 먹으면서 權五吉 총무의 사회로 權次勳 부회장등 등산해설가의 뱀사골 산행안전 등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었으며

이후에 權重元 등산회장은 인사말에서 부부등 버스대가 부족할까봐 노심초사할 정도의 참여와 권길삼(국립공원1호) 뱀사골에서 국토탐방 단합대회를 네레행사 일환으로 가졌다. 상행시에는 차량내에서 협찬된 떡,과일 등을 나눠 먹으면서 權五吉 총무의 사회로 權次勳 부회장등 등산해설가의 뱀사골 산행안전 등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었으며

모습이 부산등산회 발전에 촉매제가 될것으로 확인 한다고 했다. 뱀사골 산행중에는 끈끈하게 땀을 흘리며 입을 맞추는 등 감추어왔던 끼를 발휘하는 부녀회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와 옥수같은 계곡물이 흐르는 음악에 맞춰 하늘거리는 붉게 물들인 단풍들이 휘날려 제각기 정성껏 준비해 온 진수성찬의 오찬은 어떤 뷔페도 이렇게 맛스러울까 라는 감탄사의 연발과 權相彬 부회장이 문경에서 보내온 분홍색의 오미자 막걸리는 산행중 갈증해소와 피로 회복에 특효약이었다.

하행시에는 회장인 權正守 MC의 진행으로 신청곡을 접수, 노래방으로 진행되었는데 權相欽 부회장의 평양아줌마를 시작으로 신청자들의 노래솜씨를 발휘하는 등 일상 생활에서의 삶의 무거운 짐을 맡김이 씻어내는 하루였는데 오가며 끈끈한 정답은 회원친목과 재충전의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길,최화자총무〉

동정



▲권오준 포스코회장이 국내외 500여개 고객사를 초청해 “고객에게 친근하게” 맞춤형 기술 지원과 제품 선보어 고객의 성공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故 김대중 전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84)상임 고문이 지난 11월 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회고록「순명(順命) 출판기념회에 여야의 전·현직 정치권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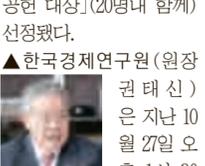
▲권오현 삼성전자부회장은 지난 11월 1일 한국 기업을 이끄는 이공계(이공학과) 전공으로 미국스탠퍼드대 전기공학 박사를 받았으며 16메가 D램 등의 주력해제계의 CEO와 슈퍼스타로 뿔났다.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지난 11월 3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제6기 글로벌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지고 미얀마학교 건립을 위한 후원금 3억원을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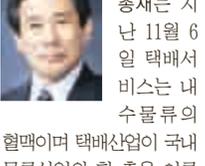


▲권상준 내사랑우리배동호회장이 최근 일간지, 주간신문, 시사투데이사가 주최, 주관하는 국민화합 지역상생 사회봉사 기술증진 인재육성 환경개선 등에서 국가발전전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2014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20명내 함께) 선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지난 10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

국경제학회(회장 김정식) 산업연구원(원장 김도훈)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방안 중국과 한국기업의 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권봉도(주)현대 통상 사장·본원 부총재는 지난 11월 6일 택배서비스는 내수물류의



핵심이며 택배산업이 국내 물류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만큼 이제부터 항공이나 해운산업처럼 제도권에서의 관련법제정은 물론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한양대에서 열린 한독 법률학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울산원연친목회 야유회

지난 11월 9일 울산원연친목회는 권태봉 회장 외 회원부부등반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통영에 위치한 섬“사랑도”에 가을야유회를 다녀왔다. 권응목 총무의 사회로 권태봉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야유회를 통해 원연회가 더욱더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길 바란다

하였다. 이어서 권태철 재무의 관공지에 대한 설명과 일정소개가 있었으며,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약 3시간에 걸쳐 가마봉 연지봉 옥녀봉 3봉을 다녀왔다. 하루동안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분위기속에 회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재확인했다

〈울산친목회 총무 권 응 목〉



△울산원연친목회가 경남 통영에 있는 「사랑도섬」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산악회 대둔산 산행



△서울산악회는 지난 11월 16일 충남 금산 대둔산 정기산행에 앞서 이치 전까지 권윤도원수 총장 사참배 후 밝은 표정으로 단체기념촬영 모습

서울산악회(회장 권영석)는 지난 11월 16일(일) 즉진 회원 45명이 충남 금산 소재 대둔산에서 11월 정기산행을 가졌다.

오전 7시 정각 관광버스 편으로 사당역을 출발,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 권영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 여러분이 아침 일찍 참석해 주어 감사하고 오늘의 행선지 대둔산은 임진왜란 당시 권윤장군이 소수의 군사를 이끌고 왜군과 싸워 대승을 거둔 이치(배터)를 그 아래 두고있는 산으로서 우리 권문들에게는 뜻깊은 곳이라는 말과 아울러 오늘 왕복 차내에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며 즐겁고 추억을 만드는 산행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 하였다. 일행은 목적지에 닿기전 이치 전

적지가 있는 고개에서 잠시 하차 전까지 앞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한 후 대둔산 주차장에서 10시경 도착, 산행에 들어갔는데 일부는 케이블카를 이용 금강다리까지 가고 일부는 걸어서 정상 마천대로 향했다.

또 다른 회원들은 금강다리 아랫쪽 우측을 돌아 찰성봉을 경유 용문골로 하산하였는데 오후 2시경 전체 회원이 주차장 인근 전주 토속식당에 모여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 따른 비용 중 관광버스비(75만원) 전액을 권영석 회장이 찬조해주었다. 일행은 식사를 마친후 오후4시 주차장을 출발 귀경길에 올랐다. 〈서울 산악회 회원 권영관〉

추밀공파 판서 공(휘 儼)

익산문중 양촌 묘소 참배



△양촌재실앞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익산종친회 추밀공파 15세 판서 공(휘 儼)계(회장 권임하)는 지난 11월 1일 권복호 총무의 인솔로 부부등반 130여명(관광버스 4대)이 충북 음성군 생곡면 방축리 388(능

안)내에 있는 문충공(휘 近)의 묘소를 참배하고 죽간간의 족의를 더욱 두텁게 했으며 선조 유덕을 기렸다. 〈권태우 양촌재실 관리소장〉

지역단신

▲지난 11월 1일 오전 11시에 안동시 서후면, 부정공파 통운대부군자감정공(휘 堧)묘소에서 △초현관 : 권기승 △아현관 : 권지욱 △충현관 : 권기정 △측관 : 권영역씨로 추향제를 봉행하였으며 이어 오후 1시에 안동서후면 부정공파 송소공(휘 우)묘소에서 △초현관 : 권기남 △아현관 : 권준호 △충현관 : 권고덕 △측관 : 권오기씨로 추향을 봉행했다. 〈권혁세 기자〉

東山 權榮泰 선생

「東山 草稿 二輯」 발간기념회



△권영태 선생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東山 權榮泰 선생(82, 상주, 36세, 추밀공파)의 문집「東山 草稿 二輯」 발간기념회가 지난 11월 7일 오전 11시 상주농협3층 대강당

에서 김중태 국회의원, 김철수 상주 문화원장, 송시완상주유림협회회장, 채광목 박악회상주 지부장, 권병국 안동권씨상주중회회장, 상주 지역 저명인사, 상주향교, 유도회원 및 직계 가족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출판 기념회는 김세명 상주향교 경전반 총무의 사회로 내빈소개로 진행됐다. 김중태 국회의원은 축사말에서

“東山 선생은 지금도 후학들에게 경전을 가르치고 계시는 존경받는 유학자로 앞으로 3-4집까지 출판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철수 상주 문화원장, 조세희 상주향교 전교의 각 축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東山 권영태 선생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학문연구에 더욱더 증진 하겠으며, 또한 옛 상주의 명성을 찾는 데 힘을 모아 보태겠다”고 말했다.

다음 가족대표로 장남 권세환 前 교육장은 답사말에서 “엄친께서 10여년전에 ‘동산초고’ 1집을 간행한 후 그동안 옥고가 쌓여어 혹 훼손 유실될까 두려워 가족들과 문인들이 상의하여 제2집을 간행하였다.”고 설명하며 “이 책에 실린 훈계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자손대대로 가보로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산선생은 ‘도산별시 전국한시 백일장’ 장원, 예천군청조림송 백일장 장원, 성균관 조선초 과거대전, 을 과와 병과에 급제하는 등, 각종 한시대회에서 120여회 입상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한시(漢詩)대회의 시관을 하고 있다.

동산 선생은 어린시절 일제 남장 십선생의 문하에서 경전을 공부하였으며, 그 후 경주이독하면서 학문에 정진하여 유학자가 되었으며, 상주한시회화, 함창유도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상주지역의 한시와 한학 발전과 그리고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권병국 상주 종친회장 자료제공, 상주신문(2014. 11. 14 인용)〉



△최동원 기념사업회 권기우 이사장(부산종친회 부회장)이 제1회 수상자 양현종에게 시상장면

울산동구종친회 가을 야유회

안동권세 울산동구종친회(회장 권혁성)는 11월 2일 권혁성회장 및 회원 25명이 전라남도 순천일원에 가을야유회를 다녀왔다.

권응목 총무의 사회로 출정식이 진행되었으며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여행이 되고 이번 야유회를 통해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강조하였으며 권문현 고문의 관공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답사지역은 신라시대에 창건된 선암사를 둘러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를 거쳐 약5만평에 조성된 갈대군락지인 순천만을 둘러보았다. 비록 짧은 시간의 여행이었지만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즐겁고



△울산 동구종친회가 순천만 앞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복 하루였다. 〈울산종친회 총무 권 응 목〉 ※ 울산동구종친회는 매년 야유회를 가지며 증원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는 모범 종친회로 거듭나고 있으며 권문에서 친양해 주고 다른 종친회도 이 같은 화합과 선조 유적지를 답사하여 송조예족정신을 함양해 주었으면 한다. 이 같은 활동을 하는 회장이하 총무의 노고를 치하 드린다. 〈대중원 사무총장〉

제1회 최동원 賞

KIA 타이거즈 양현종씨에게 시상

권기우씨(최동원 賞 기념사업회 이사장, 부산종친회부회장)가 지난 11월 11일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제1회 최동원 賞」 시상식에서 KIA 타이거즈 양현종선수에게 수여했다.<상금 2천만원>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 부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이민수, 이대호 선수 및 야구인과 권길상 부산종친회장, 권중원 수석부회장, 권혁만 부회장, 권응섭 사무국장, 죽천다수와 야구팬 등, 500여명이 참석했

〈3면에서〉 정(淸)을 정벌하기 위하여 훈련된 조선의 군대는 오히려 러시아 정벌을 하는데 쓰여져서 청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청과 러시아의 충돌로 청은 조선에 원병을 요청했고 조선은 북벌론을 피하기 위하여 두 차례나 러시아군을 격퇴하는데 참전한 것이다. 러시아는 명(明) 말기부터 차차 남쪽으로 세력을 뻗쳐 국경지대인 네르친스크와 알바진 등지에 군사기지를 축조하고 흑룡강 상류까지 내려오고 있었다. 그 결과 청·러시아 전쟁을 거쳐 러시아 황제의 강화제외에 따라 청·러시아 국경선을 정하는 1689년 이른바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된 바 있다. 효종은 청(淸)에 항복한 치욕을 씻기 위해 북벌계획을 전

심전력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내적으로는 군비확충을 위한 재정부족을 조래하였고 백성들에게는 절실한 문제가 아니 되었을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적었다. 국제적으로는 항시청(淸)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청은 서양으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그 문화를 배우려는 조선에서 북학운동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효종은 북벌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고 1659년 5월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로 인하여 효종이 왕위에 오른지 10년만에 북벌계획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는 일면 왕과 조정의 서인(西人)세력의 권력강화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끝〉